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13.(목) 16:00 배포 2025. 3. 13.(목)

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

- 식품기업 간담회 개최,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식품물가 안정에 협조 당부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3월 13일(목) 오후 2시,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3개 주요 식품기업*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CJ제일제당, SPC삼립, 남양유업, 농심, 동서식품, 동원 F&B, 대상, 롯데웰푸드, 롯데칠성음료, 삼양식품, 오리온, 풀무원식품, 해태제과

이번 간담회는 ▲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, ▲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, ▲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.

농식품부는 지난해 1%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*이 올해 2월 2.9%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, 최근 ▲환율·유가,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, ▲코코아,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, ▲인건비,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우려를 표시하였다.

*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 : ('22.12) 10.0<고점> → ('24.2) 1.9 → ('24.12) 2.0 → ('25.1) 2.7 → ('25.2) 2.9

또한, 정부가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①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, 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, ③원료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① 코코아생두, 커피농축액, 설탕, 오렌지농축액, 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중
② 커피·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(10%) 면제('22.6.28 ~ '25.12.31)
③ 밀, 코코아, 커피,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(4,500억원, 이차보전),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자금(1,634억원) 지원

식품업계는 지난 2월 11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등 식품 원료의 원가 부담을 전달하였고,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였다.

* 6개 확대 품목(4.1. 시행) : 코코아파우더, 코코아매스, 코코아버터, 기타조제파인애플, 과실칵테일, 기타단일과실주스

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고, 물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미선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식 (044-201-21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